

데스크시각



채희중
여론매체부장

“정신을 차리자 내가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기가 죽지 않았다. ‘엄마를 때리다니,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러고도 내가 아들이야!’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두 주먹을 움켜쥐고 담배를 들었다. (중략) 나는 다시 어머니의 뺨을 때렸다. (중략) 어머니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 뒤에야 정신이 들었다. ‘엄마를 때리다니, 이 미친놈이 엄마를 때리다니…….’ 어머니는 뺨을 부르며 계속 중얼거렸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홀로 돌보던 아들이 참다못해 이성을 잃는 대목이다. 일본의 유명한 과학 전문 기자인 마쓰우라 신야(57) 씨가 치매 걸린 어머니와 함께한 1000일간의 실화를 기록한 자전적 소설, ‘엄마, 미안해’의 한 페이지다. 이 소설은 환각 증상과 음식 투쟁 등 급격히 악화되는 치매 증세와 낙상, 길어쉰 간병으로 인한 생활고, ‘차라리 돌아가시면 편할 텐데’라는 자포자기의 심정, 어머니에게 손을 댄 패륜 등을 담은 진술한 얘기로 일본에 엄청난 충격과 고민을 안겨 주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간병 생활이 길어지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심신이 피폐해지고, 심

병상 아래서 쪽잠 자는 사람들

지어 이성을 잃어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우리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50대 이상 중년의 자식이 부모를 간병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치매 노인도 많아지고 그 외 낙상이나 골절 등으로 병원을 찾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다. 노인 외에 교통사고나 암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도 언제나 넘쳐난다.

병원비보다 많은 간병비라니

이로 인해 병원에서 쪽잠 자며 간병하는 이들이 많다. 간병은 체력적으로 젊은이들도 쉽지 않은 일이다. 직장과 간병 생활을 병행하는 보호자라면 더욱 말할 게 없다. 자식들은 제대로 간병하지 못해 미안해 하고, 부모는 고생하는 자식을 보며 마음 아파한다. 간병인을 쓰면 되지만 한 달 치 비용이 한 사람 월급 정도여서 서민들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필자로 최근 아버지가 낙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통에 간병비가 치료비보다 더 든다는 말을 실감했다. 골절 치료 및 입원료 8일간의 병원비는 55만 원이었지만 간병비는 이보다 많은 60만 원이 들었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70대 김영순(광주) 씨는 만성질환으로 입원해 4개월 동안 수술비를 포함해 900만 원을 병원비로 썼다. 여기에 육직임이 불편해 간병인을 쓰는 바람에

1000만 원 가량의 간병비가 들었다고 한다. 현재 광주에서 통용되는 간병비는 하루 24시간 기준 9~10만 원선이다. 식사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2주마다 하루의 유급 휴가도 줘야 한다. 한달로 치면 300만 원이 넘게 든다.

암 치료, 노인 임플란트, 스텔링 등의료보험 혜택이 넓어지고 있지만 실상 서민이나 맞벌이 입장에서 보면 간병비 해결이 훨씬 절실하다. 다행히 국가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하 통합서비스)를 시행, 간병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 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보호사가 팀을 이뤄 간호뿐만 아니라 간병까지 하는 시스템이다.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병비로 하루 1만~1만 5000원만 내면 된다.

통합서비스는 간호사로부터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그것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의료 혜택이자 선진형 복지 정책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병원 내 감염으로 확산한 점을 고려하면, 통합서비스는 감염 관리 및 방역의 기본이라는 점에서도 확대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이 적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북 병원 가운데 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인 병원은 15%로 타 지역 18%에 비해 상당히 뒤진 상태이다. 더욱이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올 8월 말 기준 광주 권역은 2321병상으로 대구 권역 3993병상, 대전 권역 2807병상 등에 비해 참여율이 턱없이 낮다.

광주는 총 90개 병원 가운데 전남대·빛고을전남대·조선대·KS·광주보훈·서광·동아·하남성심·해피뷰·에스케이제이·광주새우리·시원 병원 등 12개 병원만이 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광주새우리병원만이 전 병동에 통합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나머지 병원들은 일부 병상만을 적용하고 있어 광주에서 총 644병상, 즉 644명만이 간병비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이렇듯 통합서비스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간호사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막대한 시설 투자비를 들여 통합서비스를 확대했다가 실패할 우려 때문이라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얘기다.

고령화 속도와 늘어나는 중증·만성 질환자 등 장기 간병 수요를 감안하면 통합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3분의1 정도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간호사는 힘든 직업이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없이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 여기에 통합서비스를 도입하는 병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도 검토했으면 한다.

은젠칼럼



심명섭
행정학 박사·대한문학작가회 회장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다 견디어 냈다는 것이다.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지금 내 마음이 고민에 빠져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본다.

일본에 이류(一休)라는 스님이 있었다. 한국어로는 일휴 스님이다. 일본 왕실의 서자로 태어났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원효대사급 정도로 아주 유명한 스님중의 한분이었다. 아주 큰 사찰을 운영했고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다 찾아가서 해결책을 요청했다. 그때마다 스님은 각자 각자의 해결책을 알려주면서 어려운 일을 무사히 잘 넘기며 운영해왔다.

그런데 우리 인생사에도 끝이 있듯이 이류 스님도 열반에 가까워 온 것을 알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사찰을 운영할 때 너희들과 합심 협력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내가 죽으면 큰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결책을 하나 주겠노라 하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일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쪽지를 하나 주었다. “정말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읽어봐라! 조금 어렵다고 있어봐서는 안 된다. 아! 정말 이번엔 사찰이 무너

지겠다. 우리를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정말 힘들 때, 이 쪽지를 읽어봐라” 이 안에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이고, 이 안에 해결책이 다 적어놓았다 고 하신 뒤 몇 개월 후 열반하셨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작은 문제도, 큰 문제도 남기고, 넘기면서 왔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스님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사찰에 발생했다. 스님들과 대중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정말 큰일이었다. 그중에 한 스님이 “아!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 큰 스님이 주신 쪽지를 확인해 보자. 분명 엄청난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스님들은 마침내 이류 스님의 쪽지를 열어볼 때가 왔다고 결정하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그러나 거기엔 이렇게 한 마디도 적혀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이류 스님은 평소 “근심하지 마라. 받아야 할 일은 받아야 하고, 치러야 할 일은 치러야 한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한 마디로 집약해 놓은 것이다. 아! 그때 어떻게든 된다, 스님들은 우리 한번 해

보자! 하고 다시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내고 결국 그것으로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인생의 고민이라는 것을 맞보았을 것이다. 아! 이거 정말 문제다. 그래서 회피하고 싶고, 사양하고 싶고, 그런 심정이 모두에게 아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 지나갔고, 추억 속에 묻혀졌고, 견뎌냈다. 물론 지금도 너무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 지나가고 어떻게든 그것이 해결된다.

“고민이 있어서 머리를 싸매고 계속 고민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세상의 모든 고민이 소멸될 것이다”는 인도의 속담이 있다.

‘고민은 고민한다고 그 고민이 사라진다면 모든 고민은 없겠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쓸모없는 고민들을 우리 인간은 많이 하게끔 태어났고, 또 그것으로 현재 내 삶을 놓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

지금도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들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쩌면 오늘 걱정하는 일조차도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닐지 모른다.

기고



이정식
광주시 혁신정책관

광주 혁신,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

지난 8월 29일 정부의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겠다.” 고 혁신을 강조했다.

민선 7기 광주시장으로 당선된 이용섭 시장도 취임 후 첫 직원 정례 회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가서는 정외롭고 풍요로운 광주 의 꿈은 이루어 질 수 없다”면서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시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광주의 GRDP는 전국 1642조 원의 2.1%인 34조 원으로 제주도 다음으로 낮고 이중 제조업은 25.7%로 특·광역시 평균 16.3%보다 9.4%p 가깝게 높아 경제·산업 구조적 측면에서는 제조업 중심 도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 GRDP는 전국 대비 2.0%로 이는 전체

GRDP 2.1%보다도 낮다. 또한, 광주는 같은 내륙 도시이면서도 주변 지역이 건설한 제조업 중심으로 광역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구와 달리 주변 지역이 농업 중심 지역으로 형성된 취약한 산업 구조의 광역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같이 현재도 열악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광주는 아쉽지만 앞으로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광주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 자동차와 전자 산업이 불황하더라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시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제 광주는 도전에 대해 미래 광주의 생존이 달린 선택을 해야 한다. 광주의 선택은 시민, 기업, 근로자, 공무원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혁신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혁신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희망”이 되어야 한다. 광주시는 혁신, 소통, 청렴에 민선 7기 시정 가치를 두고 있다.

이제 광주시 공무원들이 자리에서 일

어나 시민 그리고 기업인, 근로자들을 만나 서로 현 상황을 공유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열악한 재정 여건 등 지역적 한계가 있다면 실효력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혁신의 출발로 “공무원부터 변해야 한다.”는 이용섭 시장의 강한 의지에 따라 ‘희망인사 시스템’으로 대변되는 조직, 인사, 문화 등 전방위적인 행정 내부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 특강에서 광주다움의 발굴, 변화 관리, 성공의 뒷에서 탈출, 문제 의식과 해결 능력 제고, 어렵고 힘든 새로운 일을 찾아 행함 등 광주 혁신의 5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광주는 혁신의 출발점에 서 있다. 어떤 혁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광주시의 미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社說

도시철도 공론화 언제까지 질질 끌 건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 등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는 중립적인 인사로만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양측을 대변할 위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이하 시민모임)은 그제 제7차 모임을 열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중립적인 인사 일곱 명으로 구성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 두 명씩을 추가로 참여시키자는 시민모임의 제안에는 이견을 보였다. 광주시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사가 위원에 포함되면 진영 논리에 묻혀 지금까지와 똑같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비효율적 양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론화 방식에 대해서도 시민모임 측은 신고리 5·6호기 방식인 ‘속의 조사’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시는 대표성, 책임성,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5월 단체에 구상권 청구 계획 철회해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월 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손해배상 청구 소송)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광주일보 지난 8월30일 자)와 관련, 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광주 북구)이 ‘구상권 청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옛그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도종환 문화부 장관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떠넘겨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말대로 구상권 청구는 ‘아무 실익도 없고 갈등만 유발하는 것이며 수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키우자는 것’일 뿐이다. 또한 옛 전남도청을 정부가 원형 복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뜬금없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라는 말도 백번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화전당 측은 지난 2008년 옛 전남도청 별관 준치 논란과 관련해 5월 단체 등을 상대로 110억 원대 손해배상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을 주관하는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이 어제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도시철도 논란은 재정 적자와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과 공공 교통의 혜택이 도시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충돌하면서 재연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중립적인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양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해 당사자가 참여할 경우 논의 자체가 대립적으로 진행돼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문제라면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판단 근거를 제공하면 된다. 도시철도 2호선은 기본계획 수립 후 16년간 논란만 반복하면서 지역 사회의 피로감이 높은 만큼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5월 단체들의 장기간 별관 점거농성 등으로 문화전당 건립 공정에 차질이 빚어져 업체에 해당 금액을 물어 준 만큼 국고 손실의 책임을 가리겠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장관은 “광주시 및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현명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혀 철회의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애초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과 시민 단체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5월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역시 정부가 대응적 차원에서 철회함으로써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막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순신 장군은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로 원래는 문과 시험을 준비했다. 인생이 바뀐 것은 보성 군수 방진과의 만남이었다. 조선 명궁 중의 한 명인 방진에게는 귀하게 여기는 외동딸이 있었다. 이순신의 활쏘기 실력을 잘 아는 방진은 병조판서 이준경에게 중매를 넣어 이순신을 사위로 맞았다. 21세에 두 살 어린 신부를 맞은 이순신은 장인의 권유와 경제적 후원으로 무과 시험을 준비해 32세에 급제한다.

방진의 딸은 유달리 총명했다. 12세 때인 어느 날 방진의 집에 화적들이 들어왔다. 방진은 화적에게 쏘기 위해 딸에게 화살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하지만 화적들이 계집종을 매수해 집안의 화살을 모두 빼돌려 놓는 뒤였다. 이때 딸이 꾀를 내 배 짜는 데 쓰는 대나무 다발을 화살인 양 다락에서 힘껏 던지며 “아버님, 화살 여기 있습니다”라고 소리치자 방진의 활 솜씨를 두려워한 화적들이 줄행랑을 쳤다. 이 일이 있은 후 보성 지역에는 화적들이 들어오지 못해 태평해졌고 그녀의 이름도 방태평으로 불렸다고 한다.

에 나선 이순신의 내조를 위해 평생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전쟁 통에 셋째 아들을 잃는 아픔도 견뎌야 했다. 선조는 1598년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전사하자 우의정에 추대하고 방씨부인을 정경부인에 봉했다. 정경부인은 장·종 1품 무관부의 처에게 내리는 최상급 품계다. 방씨부인에게 내린 교지는 보물로 지정돼 있다.

방씨부인의 실명이 방수진으로 확인됐다. 전남 이순신연구소가 현충사에 보관 중인 국보76호 ‘서간첩’을 분석한 결

과다. 서간첩은 충무공 이영암에 사는 연수 현씨 문중 지인에게 보낸 친필 편지를 모은 기록

물로 ‘약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란 문구도 여기에 들어 있다.

보성은 이순신과 방씨부인이 신혼 시절을 보낸 곳으로 인연이 깊다. 보성군은 방씨부인의 위대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 지난해 쇼케이스로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11월 ‘방씨부인’도 타이틀을 바꿔가야 하지 않을까.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 영 지 월 국 220-0515 | 문 화 사 업 국 220-0541 | 문 화 사 업 국 220-0541 |
|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경 처 부 220-0632 | 여 론 매 체 부 220-0652 | 기 획 관 리 국 227-9600 | 업 무 국 220-0551 |
| 경 제 부 220-0663 | 예 향 부 220-0692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 회 부 220-0664 | 사 진 부 220-0693 | 디 자 인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
| 전 남 본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FA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